

보성군 내년 예산 6666억 확정...“민생·경제 살리기 역점”

복지·농어업·문화·관광·지역정비 등 5개 분야 재정역량 집중 노인 일자리 등 110억원·노후 상수관망 정비 104억원 등 편성

보성군 내년도 예산이 6600여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성군은 복지, 농어업, 문화·관광, 지역정비, 균형발전 등 5개 분야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에 110억원, 보성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04억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44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의회가 지난 16일 제306회 보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6666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억원(0.24%) 감소한 5714억원, 특별회계는 95억원(11.02%) 증가한

952억원 규모다.

세입예산 중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56억원 감소했으며, 국도비보조금 98억원이 증가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8억원이 감소한 5545억원이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9억원, 세외수입이 8억원 감소했지만, 보전수입은 257억원이 늘어난 1121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8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연말 갑작스러운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가 2년 연속 반복됨에 따라 2025년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특히 세출 분야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내년에 ▲소외 없는 복지·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 등 5대 분야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소외 없는 복지·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110억원 ▲영유아 보육료와 부모 급여 지원 30억원 ▲출산 장려 양육지원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원 ▲청소년·청년 지역 문화축제 3억원 ▲보성 청년창업 지원 2억원 ▲보성군 출생 기본수당 1억원 등을 지원해 국가적인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다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분야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44억원 ▲보성 차 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42억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 16억원 ▲산할력 플러스 사업 16억원 ▲의 국민 계절 근로자 제도 지원 8000만원 등을 편성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분야에는 ▲보성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40억원 ▲보성차밭 관광자원화사업 24억원 ▲보성 차정원 조성사업 23억원 ▲태백산맥 테마파크 조성사업 18억원 ▲근린생활형 체육관 조성 16억원 ▲보성다향대축제 9억원 ▲보성 드론라이프 쇼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한 군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분야는 ▲보성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4억원 ▲보성 도시침수 관로정비사업 80억원 ▲북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4억원 ▲별교 봉림·양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1억원 ▲미력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5억원 등을 편성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상수도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상습적인 시가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 분야에는 ▲조성 문덕 컴백 홀어 기초생활거점사업 29억원 ▲별교읍 천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원 ▲보성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16억원 ▲별교공용버스터미널 신축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도 국세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 예산 및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898m 짙와이어, 광양의 새 관광랜드마크로 뜬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 개장식 19일까지 무료체험 특별이벤트

광양의 레포츠 시설인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한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짙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와 모노레일 개장식을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박경미 전라남도의회 의원, 임형석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898m 짙와이어로 활강 4라인으로 구성됐으며, 망덕포구 매표소에서 출발대까지 모노레일로 이동한다.

광양시는 신규 관광시설 불 조성 및 브랜딩 제고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9일간을 특별이벤트 기간으로 정하고, 무료 체험단·개장할인·탑승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시승을 위해 나선 참석자들은 모노레일 탑승장으로 이동해 모노레일 제막 퍼포먼스 후 모노레일에 올라 ‘섬진강 별빛 스카이’로 향했다.

특히 정인화 시장과 최대원 의장은 기관사 모자를 쓰고 맨 앞에 나란히 앉아 기적을 울리자 모노



광양시는 지난 10일 광양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로 부상하는 광양 짙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와 모노레일 개장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레일이 천천히 망덕산을 향해 움직였다. 짙와이어 출발대에서 안전교육 및 장비 착용 후 기대와 긴장 속에 짜릿한 활강이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조망에서 오는 감동과 짜릿한 쾌감을 동시에 체험했다는 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으로 달려주세요’라는 피켓을 나누어 들고 광양 짙와이어의 성공을 예고하는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념사에서 “섬진강 망덕포구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태환경과 인문, 역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운동·정병용 문학관, 아트케익스 관광스테이, 대한민국 캠핑 메카 등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섬진강권, 백운산권, 구룡산권 등 3권역의 대규모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천만 관광 시대가 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그 시금석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 이용장애인에 요리 제공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2일 구례축협과 함께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구례축협에서 제공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이용한 수육 요리를 마련해, 이용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용장애인들이 돼지고기 요리를 맛보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를 통해 돼지고기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송태영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축협 최정범 조합장은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과 구례축협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지방공공요금·물가 안정 관리 최선”

민생안전 대책반 운영 분야별 점검

광양시가 민생안전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 공공요금과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협업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민생안전 대책반 운영을 통한 분야별 대책 점검·추진 ▲지역 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사업 추진 강화 ▲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등이다.

광양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지방 공공요금

과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정인화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광양시 16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악스러운 사태였다”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단죄가 엄정히 이루어져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지방의정 봉사대상’

순천시의회장경원(더불어민주당·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사진)의원이 지난 11일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98회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 연구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선진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경원 의원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

정 및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하는 등 순천 시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경원 의원은 “이상은 28만 순천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뜻 깊은 격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3관왕

일자리 창출 등 3개 부문 우수상

여수시가 최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4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3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사진>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행정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완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혁신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 재생 사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서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고물가 시기 쓰레기봉투·상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연소 117개소 지정 및 이용 독려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수소 사용 연료전지 발전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 등 미래 신산업 4개 기업과 약 1조 4,401억 원 투자유치 ▲투자협약을 통한 168여 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기업과의 동반 성장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부문별 인센티브 총 2300만원을 받게 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수 시민의 일자리·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6년 연속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3년 연속 전남도 평생교육 ‘우수’

곡성군이 전라남도의 평생교육 우수시군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곡성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가한 결과, 성인문해·시민교육 등 2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가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부터 3년 연속 우수시군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관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숲에서 자연교육을 시행하는 ‘유아숲생태교육’, 청년들을 대상 군정책 및 자

치 등에 대해 교육하는 ‘청년시민학교’ 등 다수의 사업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점 대상인 대학연계 사업, 전국 단위 수상실적, 전남도 공모사업 참여도 등도 우수상 수상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시행 중인 평생교육 사업 프로그램.